

굿과 떼이얌의 여신 스토리텔링과 공동체 설득 전략 연구*

—자청비와 뿌띠야바가바티를 중심으로—

김정호**

- 차례 -

1. 서론
2. 이야기의 구조와 체계
3. 농경사회와 상상의 질서
4. 제의와 상생의 질서
5. 결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0043)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kimjho777@hanmail.net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굿과 인도 떼이얌에서 연희되는 여신서사가 지닌 이야기의 질서를 통해 여성 인물의 신화적 역할을 찾고, 이야기의 뼈대가 제의에서 구연되면서 공동체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무속의레이자 축제의 자리이기도 했던 한국의 굿과 인도의 떼이얌은 의례 퍼포먼스와 함께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전승된 이야기에서는 앞선 세대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살아있다. 실재하지 않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은 상상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여신 이야기의 뼈대는 무속 공동체 안에서 구술 전승되었으며, 구성원들에게는 믿음이나 신념을 뿌리내리게 하는 종교적 서사로 기능을 했으며, 신성성을 체험하게 하는 제의에서 노래해 왔다. 이야기와 의례에서 표현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를 그리든지 간에 그 곳에는 인간 삶의 보편성과 진실성이 함께 하고 있다.

여신서사는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인물의 행위와 사건이 공동체의 의례로 기억되어 전승되었고, 의례 행위도 공동체의 목적에 맞도록 설득력 있는 전략으로 기능하였다. 연구를 통해 서사무가로서 여신 서사의 전승이 지닌 참 뜻을 찾게 되었으며,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여신이 되기까지 딸과 여동생이 겪어내는 행위는 농경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상실이 가져올 불안감때문에 가족들의 반대에 맞설 수 밖에 없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여신서사의 주인공들이 행했던 행위를 통해 ‘여신’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들의 행위가 체제 전복을 꿈꾸었던 인물의 돌발적인 행위였는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것인지를 찾아보고자 했다. 신이 되기까지 그녀들의 겪은 행위와 이야기의 질서는 스토리텔링으로서의 여신서사가 바탕이 되어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한 의례를 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있었다고 본다.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잘 살아나가기 위한 바탕은 이야기를 통한 상상력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야기를 풀어내어 함께 하는 의

례를 통해서 공고해지고 있었다. 자청비와 뽕띠야바가바티는 이상적인 연애와 결혼을 그리고 있으며,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사랑을 찾으려 욕망대로 살고자 하였다. 그 욕망은 이질적인 것에 대한 경외감이었으며, 새로운 문화,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일지도 모른다. 이들 여신의 호기심은 농경사회의 질서에서는 노동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주제어: 굿, 떼이암, 여신서사, 자청비, 뽕띠야 바가바티, 공동체 설득, 스토리텔링

1. 서론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소망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염원이었다. 한국의 굿과 인도의 띠틈염으로 전승된 무속의례에서는 신과 사람과 자연을 통합된 유기체로 보았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인간과 신의 관계까지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꿈꾸었을 것이다. 시간과 공간까지도 분화되지 않은 카오스의 상태를 제의라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 한국의 굿과 인도의 띠틈염이다. 인류와 함께 했던 축제의 원형은 신에게 바치는 제사였으며, 굿이나 띠틈염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굿과 띠틈염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살아있음과 죽음까지도 뛰어넘어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의례이다. 대부분의 의례에는 이야기도 함께 전승되고 있었으며,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는 인류의 삶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상의 균형이 흔들리고 건강한 기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별과 불평등으로 사람살이가 힘들 때, 신에게 버림받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모여서 의례를 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창궐하거나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되었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은 사이에서는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슬기로운 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굿과 띠틈염의 여신서사가 지닌 이야기의 질서를 통해 여성 인물의 신화적 역할을 찾고, 제의에서 구현되어 공동체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여신서사는 인물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이며, 의례의 목적에 맞도록 설득력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녔다고 본다. 서사무가로서 여신 서사의 전승이 지닌 문학적 가치는 무엇인지,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로 살아서 공동체가 잘 살아나가기 위한 바탕을 위해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여신서사의 주인공들이 행했던 행위를 통해 ‘여신’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들의 행위가 체제 전복을 꿈꾸었던 인물의 돌발적인 행위였는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인도 남부 지역 케랄라의 떼이암¹에서 또땀으로 구송했던 뻘뻘야마가마티 여신²의 내력과 제주도 굿에서 풀어내는 세경본풀이의 자칭비³에 대한 내력은 농사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지역의 이야기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이들 여신은 농경사회의 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자라난 이야기이며, 주인공이 신이 되기까지의 내력에도 유사점이 있기에 그들 이야기가 지닌 서사적 질서를 밝히고자 한다.

2. 이야기의 구조와 의미

이야기라는 보편적인 언어 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믿음과 신념을 드러내고

1 Poyyur 사원(Sree Putha Puttya Bhagawati Sangam Poyyur Ponnyil Dist Kannur Kelala INDIA)에서 행해졌던 떼이암 절차와 내용은 필자가 인도에서 현장 조사했던 자료이다. 필자는 현장 조사 보고서를 출판(최용수 외, 『아시아의 무속과 춤』,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통문화연구 총서 1.2.3, 민속원, 2005-2007.)한 이후,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굿과 인도 떼이암 무속신화의 여성주인공을 연구해 왔다.

2 인도 떼이암 현장 자료를 정리한 후에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서 여신의 성격에 초점을 두고 악하고 나쁜 여신의 성격을 정리한 논문을 썼다.

3 무속신화를 통해 전승되고 있는 여신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세경본풀이>의 자칭비는 농경 기원 신화로서 지모신이자 곡모신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 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징」, 『한국민속학』31, 한국민속학회, 1999, 54-76면.

김화경,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8, 일지사, 1982, 56-78면.

이수자, 「농경 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특징과 의의」, 『동아시아 여성신화』, 집문당, 2003, 217-244면.

조현설, 「여신의 서사와 주체의 생산」, 『민족문화사연구』18, 민족문화사학회, 2001, 219-241면.

좌혜경, 「즈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6, 한국민속학회, 2003, 155-162면.

천혜숙, 「신화로 본 여계신성의 양상과 변모」, 『비교민속학』17, 비교민속학회, 1999, 53-73면.

있는 것이 신화라면, 겉으로는 신에 대한 이야기이며, 신이 되는 중심이 되는 '종교적 서사'다. 그러면서 신성성을 체험하게 하는 제의에서 구술되었다는 공통점도 있다. 구술문화로서의 이야기는 인간의 본질에 맞닿아 있고, 신의 본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상상력에 바탕을 둔 이야기를 노래한다. 신에 대한 상상력은 굿판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체감을 호소하기 위한 장치가 되기도 한다. 살면서 막히고 놀리고 답답했던 일들을 신들이 펼치는 강하고 힘 있는 행동을 통해 신성을 체득하면서 용기를 얻었는지도 모른다.

신화가 지닌 이야기의 화소에 초점을 두고 언어활동으로서 스토리텔링 (storytelling)⁴, 즉 이야기하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이야기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들이 있으며 그것은 그들의 행위로 나타난다. 이야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시공간에 대한 묘사나 서사가 친절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기에 오로지 그들에게 일어난 '행위'와 인물들의 '관계'로 해석해야 한다. 신화의 주인공들이 엮어내는 이야기는 공동체의 개인이 있기 이전의 세상을 만나는 것이며, 지금 실재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 낸다. 인간 문화에서 이야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보상과 처벌 제도이며, 이야기의 힘은 개인의 차원에서보다는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야기의 시작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 되고 확장된다. 가족 혹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인연은 운명적이고 맹목적이기에 신화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룬다. 가족 관계는 선택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며 인간으로서는 개입할 능력이나 방법도 없는 관계이다. 초월자가 미리 만들어 놓았기에 설명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들이 겪어내는 행위는

4 무속 서사의 여신 '스토리'는 굿판의 전승자들에 의해 '텔링'의 방식으로 전해진다. 신화가 제의를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제의학파의 명제가 타당하다고 보고, 무속신화는 신에 대한 기원과 신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제의의 맥락에서 전승하고 있는 담론이라고 본다.

많은 경우 주어진 환경을 극복⁵ 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거나⁶ 과업을 수행하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운명과 싸우기도⁷ 한다. 신들의 이야기에서는 갈등과 고난을 다양한 형태로 극복하고 신직을 받기도 한다. 신들의 관계에서도 가족 서사는 있으나 천상신에 대한 기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천상신⁸은 왔다가 사라지거나 이미 정해져있기에 설명이 필요없는 존재로 등장한다.

여신 서사의 주인공으로서 자청비와 뽀띠야바가바티는 이상적인 연애와 결혼을 그리고 있으며,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사랑을 찾으려 하며, 욕망대로 살고자 하였다. 그 욕망은 이질적인 것에 대한 경외감이었으며, 새로운 문화,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일지도 모른다. 부모가 있고(자청비) 오빠들이(뽀띠야바가바티)있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열정은 낯선 행동(살해와 자살, 모험 등)으로 갈등을 낳고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부딪힌다. 남녀의 결혼은 원초적인 것이며 가족이라는 집단을 이루기 이전의 본질적인 일이며 무모한 도전이 되기도 한다. 굿과 떼이얌에서 구송하는 자청비와 뽀띠야바가바티 여신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⁹ 이야기

5 제주도 본풀이에서는 〈삼공본풀이〉의 감은장아가나 〈문전본풀이〉 늑디생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승되는 〈바리공주〉무가의 바리공주가 대표적인 서사다.

6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 소별왕이 대표적이다.

7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와 인도 떼이얌의 뽀띠야 바가바티가 그렇다고 본다.

8 자청비가 욕망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문도령도 천상신이며, 그의 삶은 이미 정해져있다. 뽀띠야바가바티가 사랑하는 대상이었던 비란 장군도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삶이 정해져있으며 삶이 정해져 있으며,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이다.

9 이본들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뼈대를 살피기 위해 서사 구조가 뚜렷하고 보편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각편을 정리했다.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과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 사전』, 민속원, 1991. 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구조를 살폈다.)

- 1) 자청비는 부모의 지극한 정성으로 태어난다.
- 2) 문도령을 만나서 욕망을 표현하나 이별한다. (남장하고 동문 수학)
- 3) 자청비를 사모하는 게으른 노비 정수남에게 일을 시키지만 자신을 탐하기에 살해한다.
- 4) 부모의 꾸짖음에 서천으로 가서 황새근간의 사위가 되어 환생꽃으로 정수남을 살린다.
- 5) 청태국 할망의 수양딸이 되어 문도령 만날 기회를 찾으나 놓치고 할망에게 쫓겨난다.
- 6) 문도령 시녀를 만나 상봉한 후, 며느리 시험에 통과하나 자청비를 탐하는 남자들의 공모로 문도령이 살해된다.¹⁰
- 7) 문도령을 서천꽃으로 회생시키고, 하늘 나라 변란을 자청비가 평정한다.
- 8) 문도령의 늦은 귀환으로 실망(오해)하고¹¹, 옥황상제로부터 오곡을 받아 신이 된다.

인도 까누르 지역의 뽀유르 사원¹²에서 행한 페이얌¹³은 마을에서 주신으로

10 문도령의 죽음은 자청비를 욕심내는 주변 남성들에 의한 것이었으며, 자청비가 방비할 계책을 알려 주었으나 문도령이 외눈할망의 술잔을 거절하지 못해 독살되었다.

11 현용준 채록본에서는 문도령이 자청비 만나러 급히 돌아오느라 매무새가 흐트러진 문도령과 자청비의 모습을 설명한다. 문도령의 살해와 소생, 자청지의 변란 평정에 대한 공으로 시만국과 오곡을 받은 후 문도령을 거느리고 내려온다. 그러나 진성기 채록본에서는 문도령의 모습을 본 자청비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 혼자 오곡의 씨앗을 받아 내려온다고 되어있다.

12 Poyyur 사원(Sree Putha Puttya Bhagawati Sangam Poyyur Ponnyil Dist Kannur Kelala INDIA)에서 진행되었던 의례이다. 인도 남부 까누르 지역에서 페이얌 의례를 연행하는 사원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카유(kanu -말라얄람어) 와 카스트란(kshetran -산스크리트어)이 그것이다. 카유(kanu)는 들이나 광장, 산 등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 마다 임시로 사당을 지어 페이얌 의례를 하는 사원이다. 까누르 지역의 페이얌은 대부분 카유사원에서 연행된다고 한다.

13 2005년 1월 7일 오후 6시부터 1월 8일 오전 8시까지 연회하였다. 신을 위해 풀어내는 또 땀(신의 내력 구송)과 깔라삼(춤)이 의례의 중심을 이룬다.

모시는 뽀띠야바가바티(Puttiya Bhagavati)를 중심으로 의례가 진행된다. 마을의 넓은 공터에 임시로 마련한 사원¹⁴에는 세 명의 신(뽀띠야 바가바티, 비라칼리, 바뜨라칼리)을 불러서 좌정시키는 푸자(Puja)를 시작으로 떼이얌 의례가 진행되며, 뽀띠야바가바티 또따땀(Puttiya Bhagavati Tottam)에서 신이 된 내력을 구송한다.

인도 떼이얌의 뽀띠야바가바티(Puttiya Bhagavati) 이야기¹⁵

1)빌바푸람(Villvaapuram)저택에 여섯 명의 오빠와 여동생 뽀띠야바가바티가 살았다.

2)여자아이는 모든 형제들에게 애완동물처럼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3)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비란(Veeran)이 목욕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4)비란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비란은 그녀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14 들이나 광장, 산 등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사당을 지어 떼이얌 의례를 하는 사원인 카유 사원이다. 인도에서는 잠깐 동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임시 성소나 임시 신상을 필요로 하는 의식도 많다. 각각의 신은 흔히 그들에 대한 예배가 특별한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믿는 모종의 길일과 결부되어있다. 임시성소는 가정이든 길가 어디든 세워진다. 신을 기리는 것이 목적이기에 구조물이 정교하고 독창적이다. 며칠이 지나면 부숴질 것이지만 아름답게 설계하고 짓는다. 그들이 사용하는 구조물의 재료는 대부분 재활용된다. 축제나 푸자가 끝나면 대부분 물에 던져 분해할 수도 있도록 만들기도 한다. 자원 재활용의 차원에서 본다면 인도에서는 버려지는 것이 거의 없다. 종이, 금속 조각이나 목직판 플라스틱조차 버리지 않고 재사용 했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은 하수 오물이나 찌꺼기였다. 인도에서는 공경받아야 할 여신으로 그려지는 대지, 그 대지의 산물은 결국 다시 대지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축제가 끝나고 난 후에는 강이나 호수에 던져 분해한다. 여신의 기운이 강을 통해 다시 우주로 흡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상은 진흙과 소똥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스티븐 P. 아펜젤러 하일러, 김홍옥 옮김. 『인도, 신과의 만남』, 다빈치출판, 2002. 209-210면)

15 김정호, 「굿과 떼이얌에 나타난 신화수용 연구-나쁜 여신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72집, 한민족어문학회, 2016, 193면.

않았다.

5)그녀는 난폭해졌고, 마침내 비란을 죽여 버렸다.

6)비란이 죽자 세상은 등을 돌렸고, 오빠들도 그녀를 비난했다.

7)화가 나서 뽀띠야바가바티는 오빠들을 모두 죽이고, 불속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다.

8)놀라운 행동을 한 그녀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은 여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다.

9)그리하여 나중에는 이 여신을 마을의 구원자로 여기게 되었다.

제주도 곳에서 구송된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와 인도 페이얌의 뽀띠야바가바티를 중심인물로 두고 이야기의 뼈대를 추린다면, ‘귀하게 태어나고 사랑받으며 자란 여성이 맘에 드는 남성을 만나 함께 살고자 했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온갖 고난을 겪는다. 그녀들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신이 된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 그들의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자신의 ‘짝이 될 인물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다.’는 것이다.

자청비는 ‘자청하여 태어났기에’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삶의 주인이다. 문도령을 만나 첫 눈에 반하는 것도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에 가능한 일이고, 정수남을 죽였다가 살리고, 우여곡적 끝에 결혼에까지 이르는 것도 자청비가 자청한 일이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자청비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운명을 지녔으며, 자식없는 설움을 뼈저리게 겪은 부모의 기원을 통해 사랑받으며 출생했다. 자청비가 부모와 갈등이 생겼을 때 노비가 하는 일까지 다 해내는 것은 노동력과 생산성으로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데서 나왔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성장했을 것이며, 욕망대로 살아갈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욕구를 당당하게 드러낼 줄 아는 인물이다.

뽀띠야바가바티도 오빠들의 사랑으로 자랐다. 그들 이야기에서는 가족의 사랑이 중요한 화소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며, 삶에 대한 적극성과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성을 갖춘 인물로 표현되어 있

다. 부모와 오빠들 입장에서는 집안의 중요한 일꾼이며, 농경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력이자 생산성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다른 남성을 만나 사랑을 꿈꾸는 일은 다른 집단에 노동력과 생산성을 빼앗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공동체의 요구(노동력)와 개인의 욕망(자아정체성)이 충돌한다.¹⁶ 이들 이야기는 농경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라났다고 본다.

인도 남부 지역에서는 주로 쌀농사를 지으며 농경 생활을 했기에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자청비와 빠띠야바가바티는 농경사회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갖추었으며, 출산을 통해 새로운 노동력까지 보탬 수 있다. 그들의 자유로운 짝 선택은 남성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손해를 보는 일이 된다. 그녀들의 능력은 노동력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일생의례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른 공동체와의 결연을 위한 결혼은 권리의 이전이 되는 의례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는〈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이 드러내는 욕구를 자청비가 ‘살해’라는 방법으로 응징한 것은 강한 자신의 의지를 날것으로 드러내 보이는 행동이다. 정수남은 노비이기에 부지런함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¹⁷ 자청비와

16 〈세경본풀이〉에서는 정수남을 죽이고 집에 갔을 때 자청비의 부모가 야단을 친다. 자청비가 부모에게 대꾸한 말은 “종이 아깝습니까? 자식이 아깝습니까?” “아무리 종이 아까운들 자식보다 아깝겠느냐?”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아, 정수남이 하는 행실이 고약해서 굴미굴산에 죽여두고 왔습니다.” “이년아, 저년아, 잘나기도 잘났다. 계집이 사람을 죽이다니. 네 년은 남의집에 시집가면 그만이지만 그 종은 살려두면 우리 두 늙은이 먹을 일을 해준다.” “부모님아, 그러면 애가 그 좋아하는 일을 다 하오리다.” “어서 그건 그리하라. 어디보자 할 수 있는지” 부모의 요구를 듣고 ‘너른 발에 쪼서 닳말 닳되 세오리를 뿌려놓고 자청비에게 다 주워오라하는 일’을 ‘말 모르는 개미가 물고 가서 방해’를 해도 다 해내고 아버님께 갖다바치고 남장을 하고 눈물로 다리를 놓으며 길을 떠난다. 자청비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노비가 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 한겨레출판, 2014, 373면.)

17 소와 말 아홉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거인의 면모를 지녔으나 게으른데다가 상전의 딸인 자청비에 대한 욕망만으로 살아간다. 정수남은 자청비와 한 날 한시에 한 집에서 태어났기에 태어날 때부터 자청비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세경본풀이〉의 각권 중에서 정

정수남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농사꾼의 노동력이 중요하며, 경제적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노동의 가치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정수남은 농경사회의 덕목에는 모자라는 게으른 농사꾼이다.¹⁸ 농경생활을 위해서는 때와 철을 잘 알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곡식을 길러야 한다. 자청비가 정수남을 벌레나 짐승처럼 취급하고 무시하면서 죽이기까지 한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공동체의 인성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소와 말을 먹어 버리는 게으른 노비는 농경사회에서는 필요치 않은 덕목을 지녔으며, 고된 농삿일을 제때 하지 않고 자신의 원초적인 욕망만 쫓는 정수남의 행위는 지탄받아야 할 일이지 농사꾼들에게는 경고의 대상이 된다. 농경신으로서의 자청비의 입장에서 볼 때, 정수남은 농사꾼으로서 적합하지 않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린다. 그는 짐승처럼 험한 일을 할 수 있고 짐승을 먹어치울 정도로 짐승과 가까운 존재였기에 농삿일에 필요한 짐승의 역할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고 본다. 결국 짐승은 인간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며, 정수남은 수렵채집 시대의 남성성을 지녔던 인물이지 자청비보다는 한 단계 낮은 농사의 신이 된다. 자청비가 그를 다시 살려낸 것은 노동력 또는 생산성을 위한 행위인지도 모른다. 농삿일에는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자청비와 뿌띠야바가바티를 주인공으로 하는 사랑이야기는 여신들이 지닌 노동력과 생산성이 제의를 위한 신격 형성에 주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집약 농경사회에서는 출산으로 생길 아이까지 새로운 노동력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인도 남부의 농경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지

수남의 출생에 대한 내용을 차별화하고 있는 박봉춘본의 내용에는 “자청비 부모가 동개 나무 상주사에 시주를 약속했다가 중간에 서개나무 백금사로 시주를 옮기는 바람에 아들이 아닌 딸을 낳게 되었고, 정수남은 하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 탄생에서부터 자청비와 함께 했기에 자청비의 동반자이며, 동등한 능력을 지닌 노동의 신이라고 본다. (신동훈, 앞의 책, 390면.)

18 신동훈(앞의 책, 388-397면)은 ‘정수남은 땅, 자청비는 인간, 문도령은 하늘’의 구도로 보았다.

참금을 갖추고 공동체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¹⁹ 오빠들에게 뿌띠야바 바가바티는 집안일을 해내는 중요한 노동력이다. 낫선 집단이자 이질적인 존재인 비란 장군에게 마음을 두는 여동생을 미워할 수 밖에 없다. 여동생의 분노는 노동력과 생산성에 대한 의례를 위한 계기가 되며, 재생산과 재창조를 위해 죽이고 죽어야한다. 인도에서는 여신들이 생명을 재창조하기 위해 버럭 화를 내면서 모든 생명체들을 닥치는 대로 게걸스럽게 먹어치우거나 남편의 몸을 깎아몽개기도 한다. 그녀들은 일부러 혐오스럽고 무시무시한 외양을 자처한다고 했다. 바가바티는 결국 개인의 풍요와 마을의 번영을 비는데 꼭 필요한 신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여신에게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기원하며 숭배한다. 또한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풍요와 번영을 신에게 간청한다.

3. 농경 사회와 상상의 질서

인도 케랄라의 페이암에서 이야기했던 뿌띠야 바가바티 여신의 내력과 제주도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내력은 농사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지역의 이야기이기에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농경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상의 질서라면 농사일에 필요한 일꾼들의 노동력과 수확한 농산물을 저장하고 먹거리를 관리하는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노동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폭력에 대한 반응은 여신이 되기까지 여성주인공들이 겪어낸 고난이나 죽음 또는 살해의 원인이 된다.

인류가 수렵채집으로 먹고살기 위해 얻었던 동물과 식물은 스스로 자라고 번식한 것이지 사람들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250만년을 수렵 채

19 인도에서는 지참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참금은 때로 신분상승을 위한 희망이 되기도 한다. 지참금 액수가 늘어나면서 갈등이 생기며, 신부를 괴롭히거나 (신부 불태우기도 한다) 목숨을 끊거나 살해나 자살도 감행한다.

집으로 살던 공동체가 삶의 양식을 바꾸게 된 것이 농경으로의 전환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식물을 작물화 하거나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농사를 시작하였다.²⁰ 사람들은 뚝뚝해지면서 자연의 비밀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야하는 수렵 채집의 삶을 끝내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정착하면서 농부들은 안락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인구 폭발과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엘리트 집단이 생기면서 열악한 식사를 하게 되었기에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가 되었다.²¹ 시간이 지나면서 집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집의 규모가 확장된 후 부터는 부족이나 마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농사를 지었다. 다양한 먹거리가 아니라 소수의 농작물을 통해 농부들의 삶은 불안정했다.

농촌 마을에서는 적의 위협을 당할 경우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최후까지 싸워야한다. 집과 창고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정착생활을 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질병에도 취약해지기 시작했다. 농사를 지으면서 특정 지역에 터를 두고 식량 공급도 충분해지자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인간들은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일손이 많을수록 좋았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말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더 증폭시켰다. 농부가 생산한 잉여식량은 공동체의 소수 권력집단(왕, 병사, 사제, 예술가 등)을 먹여살리면서 농부들은 연명할 것 정도만으로 살았다. 농경 생활은 많은 노동력 요구했으며 “수렵 채집 시절의 삶을 포기하고 자연의 비밀을 파악하고 양을 길들이면서 농부의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기 위해 정착했다는 이야기는 환상”이 되었다.²² 그러기에 신화가 지닌 이야기의 본질은 인간 공동체의 믿음과 삶에 대한 사유가 녹아 있다. 신화가 문화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20 농업 혁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고고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다고 한다.(유발 하라리,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5, 123면.)

21 『총균쇠』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농경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고했으며, 『사피엔스』에서 유발하라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라고 했다. 농경사회로의 진입이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 만은 사실이다.

22 유발 하라리,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5, 124면.

에 없으며 본질적 질문은 결국 인간과 세계, 그 존재의 질서와 뿌리, 운명이나 구원과 관련된 실존적 물음에 대한 근원적 답변을 품고 있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정착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농경사회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항상 문제가 된다. 하늘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상상의 질서가 있었다. <세경본풀이>의 상세경인 문도령은 ‘하늘’을 상징하며 농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신이다. 인간의 의지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날씨를 비롯한 자연의 질서를 주재하기에 인간을 실망시키기도 한다. 비란은 문도령과 마찬가지로 천상신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많은 경우 천상신들에 대한 기원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격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주로 보상 행위의 주체가 되거나 특별한 자격없이 신직에 오른다. 문도령이나 비란 장군은 신이 되기까지의 서사가 이야기에 없지만 미리 정해둔 자리에 있는 존재이다. 그들의 짝이 되고자 하는 여성 인물들은 운명적이며 맹목적인 관계를 맺으며 신직을 위한 고난을 수행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지 못하는 자연 재해는 맞서 싸울 수 없는 폭력이며, 농사꾼들이 지닌 ‘하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된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의 입장에서 볼때, 사랑의 대상이었던 문도령의 행위가 한심하거나 무심하거나 변덕스럽기까지하다. 그런 인물이지만 자청비가 지닌 문도령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다. 뽕띠야바가바티가 비란 장군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도 그럴 것이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맹목적인 행동들을 두고 본다면 자청비와 뽕띠야바가바티는 닮아 있다. 문도령이나 비란 장군의 태도는 자청비와 뽕띠야바가바티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그녀들의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도 않고 수시로 절망하게 만드는 것으로도 그들의 성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농경사회의 질서는 불공정과 계급 분화를 낳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소스타인 베블룬에 의하면, 초기 단계의 야만 시대에는 계급적 구분이나 유한 계급 내의 직업 분화도 세밀하거나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 매일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육체 노동 즉 생산활동

은 열등계급만 하는 일로 간주된다. 열등계급은 노예나 하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여자들이 포함되었다.²³ 인도의 브라만 계급은 상류 계급들이 생산활동을 면제받은 좋은 사례가 된다. 상류 계급의 남자들은 생산 활동을 면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규범화된 관습에 따라 생산활동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정치, 전쟁, 종교의식, 스포츠 등이다. 유목이나 수렵 채집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던 시대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역할에 따른 계급 구별은 있었으나 노동을 면제 받지 않았다. 따라서 야만인 사냥꾼들은 자신을 일개 노동자로 여기지 않았으며 여자와 같은 계급으로 분류하지도 않았다. 여성의 노동과 남자의 사냥이나 전투를 혼동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다.²⁴

그러나, 상상의 질서는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 신화는 사람들이 신봉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상상의 질서를 보호하려면 지속적이고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다.²⁵ 노력 중 일부는 상상의 질서에 맞춰 행동하도록 강요, 강제하면서 설새 없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붕괴될 위험이 있는 농경사회는 질서의 위기가 개인의 내부나 안으로부터 나온 욕망으로 표현된다. 농업 집단에서 가족의 질서는 노동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동력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부터 강요가 있거나 폭력 또는 자살과 살해의 방법으로 상상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수백만 명의 낮은 사람에게 협력하도록 설득해야 했다.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희생양으로는 ‘여자, 딸, 여동생’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이 선택된다. 이야기를 전하는 사건은 집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야기 끝에 신직을 얻은 그녀들은 집밖으로 나가 의례를 거친 후 공동체를 설득한다. 자연의 질서는 안정된 질서이며 상상의 질서는 붕괴될 위험이 있다. 신화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는 ‘민

23 소스타인 베블런, 김성균 옮김, 『유한계급론』, 우물이 있는 집, 2020, 25면.

24 소스타인 베블런, 위의 책, 28면.

25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수렵 채집의 시대를 끝내고 농업혁명을 이루면서 공동체가 공유하는 ‘상상속의 질서’에서 신화가 지닌 강력한 힘이 인간에게 거대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유발 하라리,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5, 120-167면 참조)

음'을 무기로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종교적, 제의적 맥락에서 구연되었던 신화의 주인공들에 대한 서사는 다른 세계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로 불러내어 새로운 세계로 확장하기 위한 인간 문화의 진화 과정에서 얻은 '공유된 세계'이다. 따라서 신화는 옛것을 공유하고 지금의 것들을 확장하여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콘텐츠이다. 여신 스토리텔링이 제의적 맥락에 기초한 종교적 담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의를 통해 구성원들을 공감하게 하고 제의로 일치를 이루게 하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4. 제의와 상생의 질서

르네 지라르는 신화의 주인공들이 지닌 영웅적 업적이나 행위를 신성시하는 분석에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신화의 주인공에게는 결핍이 있으며, 그것은 보통의 인간이 지니지 않은 특징을 지녔기에 신화나 제의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들은 공동체 내부에서는 희생양이 된다.²⁶ 공동체 내부의 질서와 평화와 풍요로움은 차이나 차별이 제대로 존재할 때이며, 가족과 같은 공동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투쟁은 차이나 차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없어지는 데(차이의 소멸)서 온다고 보았다. 희생을 통해 내부의 폭력을 진정시키고 분쟁의 폭발을 막기도 한다.²⁷ 제의적 폭력을 통해 공동체 내부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상호 폭력 속에서 잃어버렸던 일체감을 다시 회복시키게 된다.

상상의 질서를 바탕으로 제의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신들의 내력이 무난해서는 안 되는지도 모른다. 노력하다가 지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면 노력하다가 지쳐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 노력이 긍정적

26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1998.

27 르네 지라르,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0. 22-30면.

결과를 만들어 신이 되는 모습을 통해 함께 잘 살아가자는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신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역할을 담은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 의례를 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표현했다. 하늘의 번덕과 무심함을 받아들이며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자청비와 뽕피야바가바티는 상상의 질서를 통해서 모든 생명들과 화해를 꿈꾸는 의례의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졌던 인물들이다.

그들은 신이 되기 전에 사랑을 선택했고 사랑을 위해 죽이거나 죽거나 죽었다. 자청비는 정수남을 죽였다가 살리기도 했으며, 자청비가 사랑했던 문도령도 주변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기도 한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청비는 사랑을 이루었으나 배신당하고 신이 된다. 뽕피야 바가바티는 사랑의 대상과 그녀의 사랑을 반대하는 오빠들을 죽이고 스스로 자살한다. 신화를 통해 여신들에게 신직을 부여하고 그들을 기리는 의례를 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을 설득한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공동체의 원의를 신에게 빌며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신과 사람,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을 꿈꾸는 자리를 마련한다.

여신서사에서 신성성을 설득력있게 하는 장치는 두 겹의 중층적인 구조로 표현된다. 굿과 떼이암의 의례에서 행해지는 희생제물의 살해와 피흘림이며, 다른 하나는 본풀이에서 구송되는 신직을 얻게 되는 신의 내력이다. 신직을 얻기까지 여성 주인공(자청비, 뽕피야바가바티)은 남성들(문도령, 비란 장군, 오빠들)에게 절망하고 수난을 겪고, 살해하거나 자살하면서 신성을 획득한다.

신이 능력을 갖추기까지의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굿 참가자(제의의뢰자)들과 굿을 주관하는 무당(제의집전자)은 신에게 굿판에서 신의 능력을 드러내며 제물을 증여하고, 신격을 갖춘 제의 집전자는 수혜자가 되어 제물을 바친다. 신이 된 무당은 답례의 의미로 공수를 준다. 제물은 공물이 되며, 굿판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의례에 대한 보상의 행위가 되며, 호혜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마르셀 모스는 『증여론』²⁸에서 원시사회의 선물교환을 분석하면서, 한 집단이 선물을 교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용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여러 요소들은 아우르는 총체적인 것이라고 했다. 물질적이며 눈에 보이는 선물의 증여와 수혜와 답례는 사회를 유지하고 결속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 선물 교환 체계는 단순한 물건 교환만이 아니라 부나 권력이나 힘을 갖출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모스는 원시사회나 고대사회의 결혼식, 축제, 종교의식, 잔치 시장이나 무역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환이 선물 교환의 형태로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그 배후에 작동하는 ‘호혜성’의 원리가 있다고 했다. 되갚지 않아도 되는 선물, 답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무한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선물이거나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온갖 현상들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많은 집단에서 인간들은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존재나 신(자연)에게 기도나 제의를 제물로 바친다.

그런 점에서 무속의례는 제물을 준비해서 바치거나 무당이 신이 되어 제물이 되는 것, 무속본풀이에서는 서사의 주인공이 희생제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무속 또는 희생제의는 세속의 인간이 의례 과정을 거치면서 파괴되는 사물인 제물(페이얌의 닭, 굿의 무구와 제물들 - 본풀이의 여성주인공들)을 매개로 하여 신성한 존재와 소통하게 한다. 신에게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신은 그 값을 보답해준다는 ‘믿음’이 바탕이 된다. 인도에서는 신도와 신의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다. 줌으로써 받는 것이고, 받으면 반드시 그 출처를 알아내서 보답해야 한다. 건강과 행운은 신과의 공생관계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선물이다. 불운과 재난은 불균형, 불합리한 행동, 잘못된 생각과 행동의 소산이다. 균형은 좋은 행동, 올바른 행실, 건고한 신앙과 자기 신에 대한 합당한 숭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²⁹

28 마르셀 모스, 이상률 역, 『증여론』, 한길사, 2011.

29 스티븐 P. 아펜젤러 하일러 글 사진. 김홍옥 옮김. 『인도, 신과의 만남』, 다빈치, 2002, 257면.

무속의례의 궂모양은 희생제물의 ‘피흘림’(살해)로 진행이 되고, 굿의 본풀이 구송이나 떼이얌의 또땀에서 풀어내는 속뜻은 신이 되기 위해 살해(자살)을 서슴지않는 여성주인공의 힘과 위력을 표현한다. 의례는 인간이 신에게 주는 선물이다(증여). 신은 인간으로부터 선물을 받고(수혜), 인간에게 공수를 하거나 신을 위해 노래와 춤(답례)으로 갚는다. 공수를 통해서 신과 인간 사이에는 ‘화해의 장’이 마련된다. 인간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존중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신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증여의 시스템은 소통과 화해를 통해 공존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삶은 인간과 신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굿 참여자(마을 또는 개인)와 굿 주관자(무당) 모두가 깨닫게 되며,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공존의 메시지를 드러낸다. 특히, 희생제의에서 제물이 파괴(살해) 될 때는 제3의 사물을 매개로 하기에 신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닭이나 돼지나 소가 피를 흘리고 제장에 피를 뿌리는 것은 선물의 또 다른 형태인 지도 모른다. 굿이나 떼이얌에서는 희생제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강력한 종교적 힘이자 불가해한 능력이며,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두렵고 어려운 “힘”인지도 모른다. 희생제의의 과정에서 제물이 파괴되거나 살해된다는 것은 의례를 하는 집단이 강렬하고 파괴적이며 힘있는 신성성(神聖性)을 원하기 때문이다. 의례에서 연희하는 장치와 행위들은 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가시적 모델이며, 공동체의 소통과 결속을 위해 풀어내는 ‘이야기’는 자신들의 세계를 인식하고 강화하는 장치가 된다.

굿관과 본풀이, 떼이얌과 또땀의 관계를 살피면, 공동체의 의례가 이루어지기 위해 구술 전승은 언어 행위를 소통의 수단으로 하면서 희생제의의 타당성과 보편성을 드러내는 인간문화의 바탕이 된다. 증여의 관계 상황을 의례라는 큰 틀에서 춤과 음악을 통해 보여주고, 노래를 하면서 자연이나 사회나 인간 자신에 대한 질서와 가치체계를 표현한다. 이야기에서 전하려는 상상의 질서와 의례를 통해 드러내려는 상생의 질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신	자청비 (제주도 큰 곳의 세경본풀이)		쁘띠야바가바티 (인도떼이암의 또맘)
	상상의 질서 (이야기)	외적 요인	문도령의 무심과 변덕
내적 요인		정수남의 욕정과 게으름. 노동력 회복 의지	오빠들의 애정 및 노동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갈등 해결		고난 극복. 살해. 재생	살해. 자살
상생의 질서 (의례)	신직계기(증여)	노동력과 재생력	노동력. 파괴와 재생
	의례표현(호혜)	본풀이 구송	또맘 구송. 춤. (불의 제의)
	의례목적(답례)	풍농과 상생	풍농과 안녕. 상생.

농경사회에서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이 넉넉하고, 모두가 불평없이 잘 살기 위해서는 주어진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갖추어야 한다. 농사꾼에게는 천재지변이나 하늘의 무심함과 변덕까지도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자청비와 뿌띠야바가바티는 노동력과 재생력을 지녔기에 상상의 질서를 통해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았다.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다. 문도령은 서사의 내용으로 기원을 밝히지 못하는 하늘 신이기에 받기만 해도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정수남은 자청비에게 주기만 하고 ‘죽음’을 대가로 받았다. 뿌띠야바가바티의 경우는 오빠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예쁘게 자랐으니 오빠들은 설명이 불가능한 ‘정해진 세계’의 존재이다. 어쩌면 정수남과 닮은 존재들이다. 비란 장군은 문도령과 닮았으며 뿌띠야바가바티의 사랑과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는 인물이다. 인물들 간의 관계 맺음에서 죽었다가 살리거나 죽은 뒤에 신이 되게하는 것은 생명을 되살리는 행위이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권력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³⁰ 받는 사람은 준 사람에게 빚진 상태이기에 감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한 감정은 답례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연대관계를 이룬다. 결국 증여는 공동체적 삶에서 관계를 맺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이다. 증여를 통한 형평성은 보상과 처벌의 맥락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균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진다. 무속의례는 신직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이

30 모리스 고들리에, 오창현 옮김, 『증여의 수수께끼』, 문학동네, 2011, 28면.

야기 속 상상의 질서와 실제 세계 사이의 질서를 조율하는 자리가 된다.

신이 된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도록 유도한다. 욕망이 좌절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인물들을 통해 자신보다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힘든 고통을 감내하는 인물들을 배려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도록 기원한다. 신에게 재물과 기도와 춤과 이야기로 위로와 격려를 증여하고 공동체의 삶에는 신들의 기운으로 안녕과 평화를 얻고자 하는 답례를 바라는 것이다. 증여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도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공존과 상생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인물을 드러냄으로써 공동체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가르침을 드러내기도 한다.

5. 결론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꾸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다. 신화 시대에서 미래의 어느 사회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삶은 늘 공동체와 함께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희망해 왔다. 오랜 시간 전승되었던 신화와 의례는 인류의 출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신화는 말이며 의례는 행동이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것은 거짓말이 된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인간에게 신화는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신의 이야기로 전승되어 믿음을 바탕으로 의례 행위를 표현했던 집단에게는 설득력을 인정받은 이야기이다.

농경사회에서 공동체 모두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함께 잘 살아야겠다는 염원들은 상상의 이야기인 신화를 통해 표현했다. 신화에는 수백만명의 서로 모르는 사람들까지 협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는 살아 나가면서 겪게 되는 관계와 갈등을 풀어내고 공유한다. 이야기는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을 갖게 하며, 종교와 신앙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나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야기를 통한 인간의 상상력은 거대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예술도 마찬가지이며 예술과 이야기가 정교하게 발달하면서 인간문화를 진화시킬 수 있다.³¹ 또한, 문화와 관습은 특정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된다. 그들에게는 약속이자 규칙으로 자리잡으면서 갖가지 제도를 만들기도 한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신화는 공동체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장치가 되었다. 신화는 경험했거나 듣고 보고 체득한 것들을 재구성하여 이야기로 서술하는 예술행위이다. 이야기는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관심에서 시작되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다. 이야기를 통해 의례의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단히거나 막힌 마음을 열 수 있는 장치가 되었으며,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거쳐야 했던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신화를 통해 전하려했던 설득의 중요한 메시지는 농경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치도 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고 처음부터 설명조차 필요없는 천상신 정도의 운명이 아니면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나 천재지변으로 노동력을 잃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보거나 공동체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미움과 분노를 다스릴 장치가 필요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빌미로 인간과 인간이 공동체 내에서 벌이는 미움과 분노와 원한 등을 무속의례에 함께 하는 시간 동안은 울음과 웃음의 정서를 공유하면서 화해하고 상생의 길을 찾았다고 본다. 축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과 시간에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기를 기원했다. 한국의 굿과 떼이암도 오랜 시간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개인과 가정의 문제, 마을공동체와 신의 세계를 넘어 우주적 통합과 화해를 꿈꾸었다고 본다.

31 브라이언 보이드 지음, 남경태 옮김, 『이야기의 기원』, 휴머니스트, 2009, 47-165면.

[ABSTRACT]

A study on the goddess storytelling and Community Persuasion
Strategy of Gut and Teyyam

—Focused on Jacheongbi and Puttiya Bagavati—

Kim, Jung-ho(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Myth reveals the beliefs and faiths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universal verbal act as a story. Myth is a story about a god on the outside, and is a 'religious narrative' that mainly deals with a god. At the same time, there is also a common point that it was dictated in an ritual to experience divine nature. The story as an oral culture touches the essence of human beings, shamanic epic as storytelling sings a story based on imagination in order to unravel God's example. The imagination of God also serves as a device for appealing a sense of unity to all those who participate in Gut.

Courage may have gained by acquiring the divinity through the strong and powerful actions of the gods against blocked, pressed, and frustrated events in life. Gut and Teyyam which were both a shaman ritual and a festival venue, were handed down in a specific area for a long time. In the stories passed down along with the performance of the ritual, the stories of the lives of the previous generations are alive. *Some* can meet a world of imagination that was believed to be happen even if it wasn't real. Since it has been transmitted orally within the shamanic community, it has been

sung in rituals that allow members to experience divinity through religious narratives that take root in their beliefs and beliefs. No matter what world the world expressed in stories and rituals depicts, the universality and truthfulness of human life accompany it.

Therefore, this study purposes to find the mythical role of female characters through the order of narratives of the goddess narrative, and examines strategies to persuade the community through rituals. The goddess narrative is a story centered around the actions of a character. It has a convincing strategic value that fits the purpose of the ritual. What is the literary value of the transmission of the goddess narrative as a shamanic epic, and the 'old story' is alive as the 'today's story' to resolve the conflict of the community and lay the groundwork for living well. Through the actions of the protagonists of the goddess narrative, nature of the 'goddess' would be examined, and consider whether their actions were sudden actions of a person who dreamed of overthrowing the system, or whether they deal with the human nature of living according to desire.

The history of the goddess Petiya Bhagabati, who was sent from Thayyarn in Kerala to tottam in southern India, and the history of the Jacheongbi of Segyeongbonpuri, unraveled in Gut of Jeju-do, are the stories of regions that formed a community based on farming. These goddesses are stories that were brought up based on the order of the agricultural society, so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narrative order of their stories, since there are similarities in the history of the protagonist becoming a god. Also, rituals that are conducted to unite the community and the strategy to minimize conflict, are to be examined, based on the goddess narrative as a storytelling. The study aims to confirm utility of the story based on universality as well as the power of culture that moves the human mind, even in the era of super-fast and

hyper-connected.

Key words: Thayyam, Gut, shamanic epic, Segyeongbonpuri, Puttiya Bhagabati, goddess narrative, storytelling, Community Persuasion

[참고문헌]

□ 기본 자료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자료집』, 칠머리당굿 보존회, 1998.
허남춘, 『양창보 십방 본풀이』, 보고사, 2010.
허남춘, 송정희, 『고순안 십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3.
허남춘, 정희종, 『서순심 십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5.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 단행본

- 김석형, 『고대 한일 관계사』, 한마당, 1998.
김열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아카넷, 2003.
김인희,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1987.
신동훈, 『살아있는 한국신화』, 한겨레출판, 2014.
장주근,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최용수 외, 『아시아의 무속과 춤』,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통문화연구 총서 1.2.3, 민속원, 2005-2007.
최인학 외, 『비교민속학과 비교문화』, 민속원, 1999.
하효길 외, 『한국의 굿』, 민속원, 2002.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머니즘』, 까치, 1992.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윤기 옮김,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1997.
스티븐 P. 아펜젤러 하일러, 김홍옥 옮김, 『인도, 신과의 만남』, 다빈치출판, 2002.
볼프강 조프스키. 이한우 역, 『폭력사회. 폭력은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푸른숲, 2010.
브라이언 보이드 지음, 남경태 옮김, 『이야기의 기원』, 휴머니스트, 2009.
유발 하라리,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5.

- 르네 지라르,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0.
-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1998.
- 모리스 고들리에, 오창현 옮김, 『증여의 수수께끼』, 문학동네, 2011,
- 소스타인 베블런, 김성균 옮김, 『유한계급론』, 우물이 있는 집, 2020.
-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윤기 옮김,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1997,
- 지그문트 프로이트, 강영계 역, 『토템과 터부』, 지만지, 2009.
- 칼 융, 설영환 역, 『융 심리학 해설』, 선영사, 1993.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신화학 1, 2』, 한길사, 2005.
-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인정남 역, 『야생의 사고』, 한길사, 1996.
- 히메노 미도리 지음, 신명숙 옮김, 『예능의 인류학』, 문화가족, 2004.

□ 논문

-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 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54-76면.
- 구수영, 김남일, 「라마야나」, 『인도세계신화여행』, 2015.
- 김재용, 「문전본풀이의 무속신화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22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4, 73-98면.
- 김화경,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 8, 일지사, 1982, 56-78면.
- 류경희, 「인도 여신신화와 여성정체성 - 여성정체성의 이중구조와 그 인도문화적 의미」, 『종교연구』 제45집, 2006, 25-51면.
- 이수자,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 『이화어문논집』, 이화어문학회, 1998, 5-30면.
- 이수자, 「농경 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특징과 의의」, 『동아시아 여성신화』, 집문당, 2003, 217-244면.
- 이지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집, 2006, 299-233면.
- 이지영,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특징과 의의」, 『동아시아 여성신화』, 집문당,

2003.

조현설, 「여신의 서사와 주체의 생산」, 『민족문화사연구』 18, 민족문화사학회, 2001, 219-241면.

좌혜경, 「즈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6, 한국무속학회, 2003, 155-162면.

천혜숙, 「신화로 본 여계신성의 양상과 변모」, 『비교민속학』 17, 비교민속학회, 1999, 53-73면.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여성신화」, 『탐라문화 42호』, 탐라문화연구원2013, 101-136면.

접수일: 2021. 03. 29 총평일: 2021. 04. 26 게재확정: 2021. 04. 29